

# 이베스트證 926억 유상증자... 소액주주 비율 늘린다

코스닥서 6.38% ↓ 7630원 마감  
자기자본 5000억 수준으로 늘 듯  
“자본 늘어 신사업진출 여유 생겨  
향후 조직개편 통해 적극적 투자”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 증시도 박스권에 갇히면서 증권사가 새로운 투자처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증권사의 연이은 자본 증자도 투자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1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대비 6.38% 하락한 763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일 발표한 92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 때문이다.

이베스트증권이 유상증자를 결정한 배경은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주식분산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베스트증권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은 84.88%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소액주주 지분을 25% 이상 늘린다는 게 회사 측의 계획이다.

아울러 이베스트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김원규 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이베스트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를 현재 4000억원대에서 1조원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 이번 유상증자로 이베스트증권의 자기자본은 5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자본증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NCR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을 총 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NCR이 높을수록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의미다.

현재 이베스트투자증권은 NCR 비중은 432.7%다. 금융감독 당국이 권고하는 50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장외과생, 신탁, 헤지펀드 라이선스 확보 등을 통한 신사업 진출시 위험자산 증가에 따라 NCR 비중이 더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베스트증권 관계자는 “자본이 늘어나면서 신사업 진출 시 투자 여유가 생겼다”면서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더 적극적인 투자와 영업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지난해 자기자본을 1조2000억원 늘렸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투자의 자기자본은 3조2000억원으로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 기준인 자기자본 4조원 달성이 최종 목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올해 시장 변동성 확대와 영업환경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도 각 사업그룹별로 강점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하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투는 해외 대체투자 부문에 강점을 보여온 만큼 관련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해외 대체투자 부문을 더욱 강화해서 해외투자자의 대상 국가와 대상 자산을 지속적으로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수익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기자본 3조원을 넘어서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신용공여 등이 가능해진다. 레버리지 비율, 건전성 규제 완화 등 투자 여력이 커진 상황이다.

한화투자증권 역시 지난달 26일 1000억원 규모의 제3차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증자를 통해 확충한 자본 일부를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5대 대형 증권회사의 평균 자기자본 규모는 2008년 2조3000억원에 못미치던 수준에서 2018년에는 5조3000억원 수준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적 조치가 증권회사의 자기자본 확대의 유인이 됐다”면서 “증권사의 자기자본 확대가 수익성 강화, 모험자본 공급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이룰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증권 다이제스트

###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 내일 해외선물투자설명회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교보증권 19층 비전홀(여의도역 4번출구)에서 해외선물 투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선물 자동매매 시스템 특허권자 김대홍씨가 ‘인공지능(AI) 해외선물 자동매매로 절대수의 창출하기’ 주제로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문의는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하면 된다.

/손업지 기자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17일 제약·바이오 강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오는 17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독특한 구조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KB증권 이태영 선임연구원이 강연자로 나선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독특한 특성을 알아보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나아가 글로벌 라이선스 및 인수합병(M&A) 계약 분석을 통해 최신 신약 개발 트렌드를 확인하는 등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좌는 투교협 홈페이지에 신청(170명 한정·무료)하면 되고, 참석자에게는 강연 자료를 제공한다.

/손업지 기자

## 파생결합증권 116조 발행 ‘역대최대’... 3.9% 증가

주요지수 하락에 투자이익 절반 뚝  
상환액 25% 하락, 발행잔액 112조

〈파생결합증권 발행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발행	상환	잔액
ELS	49.3	45.5	69.2	81.1	95.1	55.2	86.7	67.4	72.9
DLS	29.2	27.8	32.1	30.5	27.8	34.8	29.2	24.6	38.9
전체	78.5	73.3	101.3	111.6	122.9	90.0	115.9	92.0	111.8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추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E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주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투자이익은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1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역대 최대치다.

상환액은 전년 대비 25.1% 감소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발행잔액도 111조8000억원으로 110조원을 돌파했다.

ELS 발행액은 전년 대비 6.9% 늘어난 86조7000억원이다.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말로

H지수에 대한 발행감축 자율규제가 종료됐고,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투자 수요도 확대되면서 ELS 발행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모 발행 비중이 84.5%로 전년 78.6%보다 확대됐으며, 원금보장형 발행 비중도 21.5%로 소폭 높아졌다.

발행형태별로는 지수형 ELS 발행 비중이 90.2%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초자산별 발행규모는 유로스톡스(EuroStoxx)50이 58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H지수 49조9000억원 ▲S&P500 40조2000억원 ▲코스피200 35조1000억원 등의 순이다.

H지수를 기초로한 ELS 발행감축 자율규제가 종료되면서 H지수 기초 ELS 발행비중이 63.8%로 전년 22.6% 대비 급증했다. 반면 HSI지수 기초 ELS 발행비중은 2.4%로 전년 36.5%에서 급감했다.

지난해 중 ELS 상환액은 6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1%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주요 지수가 하락하면서

조기상환 규모가 40% 가까이 줄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투자이익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원금손실구간(Knock-In)에 도달한 파생결합증권은 3914억원이다. 대부분인 78.2%가 2020년 이후 만기가 돌아온다.

ELS 녹인 발생금액은 3463억원으로 전체 원금비보장형 잔액의 0.5% 수준이며, DLS 녹인 발생금액은 451억원으로 전체 원금비보장형 잔액의 0.1%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입하는 기초자산의 개수가 늘고, 기존 상품에 비해 조기상환 구조도 복잡해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H지수에 대한 솔림이 심화되고 미상환 잔액도 증가한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 NH투자증권, 印尼 현지기업 메타엡시 상장

NH투자증권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현지기업인 메타엡시(PT. META EPSI TBK)를 상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장은 NH투자증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증권’이 기업공개(IPO) 대표주관을 맡았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상장된 META EPSI는 인도네시아 EPC 건설사로서 주로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의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이다. EPC 건설사란 Engineering(설계), Procurement(구매), Construction(건설) 능력을 가지고 일괄해서

구조물을 완공하는 건설사를 말한다.

공모가는 320루피아, 공모규모는 약 6억2000주로 한화 기준 약 160억원 규모로 상장했다. 상장 첫날 50%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출발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인도네시아의 꾸준한 건설 프로젝트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주가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NH코린도증권은 정영재 사장이 선임된 2018년부터 IB사업을 강화하면서 2018년 IPO 대표주관을 3건 수행하였으며, 2019년은 4개 이상의 IPO 대표 주관을 목표로 영업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메타엡시(PT. META EPSI TBK)를 4월 10일(현지 시간) 상장시켰다. (왼쪽부터) 최훈 NH코린도증권 CFO, 인드르메 메타엡시 CFO, 인드르메 메타엡시 대표이사, 민두하 NH코린도증권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지난해 12월 304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바탕으로 채권 인수 주선 업무, 자기자본투자(PI) 등 신규 비즈니스도 추진하는 등 인도네시아 종합증권사로서의

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18억원 증가한 약 37억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손업지 기자